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21) 노아의 가족 - 이재만 | 2쪽 |
| 2. Articles (11) 명왕성의 교훈 - 이종현 역 | 4쪽 |
| 3.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29) 우람한 소나무의 최후 - 김경태 | 6쪽 |
| 4. 새로 바라본 그랜드캐니언 (4)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역 | 8쪽 |

인사말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을 대구제일교회로 옮겼습니다. 대구제일교회가 다름이 아닌 제가 다니는 교회이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당회에서 승낙해줬을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님께서도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동일교회에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오던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에 사무실 공간 제공을 통해 참여하게 된 것은 저희 교회로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과학회 행사들도 저희 교회에서 적극 수용하여 많은 교인들의 참여를 인도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된 우리 지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지 또한 기대가 됩니다. 5월도 주님 뜻 안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연구위원 김 영 철 올림 -

1. 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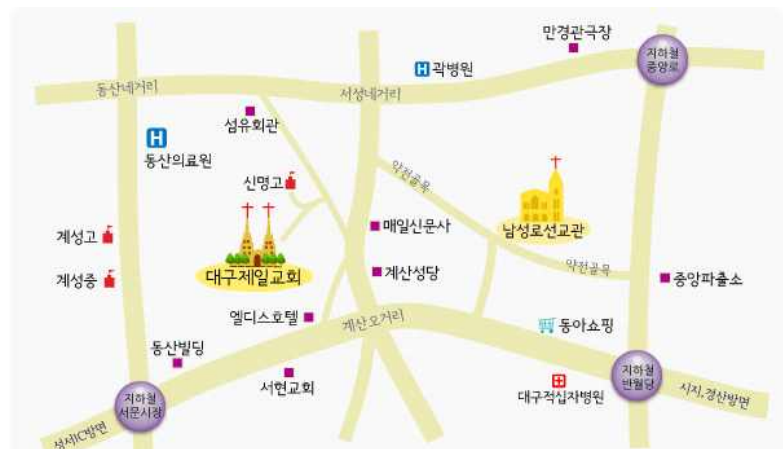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9년 5월 21일(목)

장소: 제일교회 본당

☎ (053) 743-6058

내용: In the Beginning (최신판)
(by Walt Brown)



노아의 가족들 (Noah and His Family)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창 6:10)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창 6:10, 새번역)

“And Noah begat three sons, Shem, Ham, and Japheth.” - Genesis 6:10, KJV

“Noah became the father of three sons: Shem, Ham, and Japheth.” - Genesis 6:10, NASB

방주에는 노아만 탑승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즉 아내와 아들 셋과 그들의 며느리도 함께 탔다. 이는 분명히 노아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구원의 기준에 합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 새번역)”(겔 14:14)는 말씀에 비추어 노아 뿐 아니라 그 가족도 노아에 준하는 믿음이 있었으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 때에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일곱 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 새번역)”(벧후 2:5)에서 알 수 있는 것같이 방주에 탔던 여덟 명은 노아의 전도사역에 동참했음이 분명하다.



제목: '노아 이야기'

화가: 로렌초 기베르티

(Lorenzo Ghiberti: 1378 - 1455)

연도: 1420년경

다운로드 웹사이트

<http://www.bible-art.info/Noah.htm>

이들의 족보 가운데 성경에서 성품을 접근할 수 있는 에녹부터 므드셀라, 라멕,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는 당시 죄악이 관영하였다는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아슬아슬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만한 사람이 여덟 명으로 좁혀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은가?

사사기에서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삿2:10) 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기록 얼마 뒤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세대를 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뿐 아니라 그의 이적과 역사하심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자식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신 11:19) 광야에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깨달을 알 수 없다 (욥 38:4).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우준 할 뿐이며 (롬 1:22), 스스로 악에서 떠날 수 없다 (잠 3:7). 이것이 바로 죄인 된 우리들의 한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과 그가 하신 사실을 전파하지 않고는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 (롬 10:14). 노아의 아들들까지 전해지는 믿음의 족보 속에서 이들 조상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뿐 아니라,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도 느끼게 한다. 그 결과로 자식들조차도 보지 못했던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었다.

노아의 가족을 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의 말씀에 가장 훌륭하고 드라마틱한 하나의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히브리서에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household)을 구원하였으니..”(히 11:7)고 그 사실을 뒷받침 한다.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식들에게는 이보다 큰 혜택이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부모에게는 더욱 귀중한 자식일뿐더러 책임감이 부여되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아브라함)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창 18:19). 아비는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의와 도를 가르치기 위해 택하여 졌다. 노아의 세 아들과 그의 족보를 통해 열심히 아비의 의무를 행한 조상들과 이를 순종한 자식들의 모습이 풍겨난다.

출처: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2388¶m=type=C|authorname=이재만> **참조**

명왕성의 교훈

(A Lesson From Pluto)

2006년, 국제천문연맹(IAU)에서는 행성을 정의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기준을 채택했고, 그 결과 명왕성은 더 이상 규정에 도달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명왕성을 행성으로 복귀시켜야만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다.

명왕성은 지구보다 태양으로부터 40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전을 하고 70년 넘게 우리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으로 간주되었다. 톰보(Clyde Tombaugh: 1906-1997)가 애리조나 주의 로웰 관측소(Rowell Observatory)에서 2주 간격으로 찍힌 별들의 사진을 비교함으로써 1930년에 명왕성을 발견했다.

천왕성의 운동에 있어서 인지된 불규칙성 때문에, 관측소의 설립자인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은 아홉 번째 행성의 존재를 믿었다. 그는 그것에 행성 X라는 명칭을 붙이고서 지구보다 6배 이상 클 것으로 계산했다. 심지어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말했다. 로웰은 1906년부터 죽기 전까지 그 행성을 찾았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톰보는 1929년에 그 관측소에 고용되어 로웰이 제안한 위치 가까이에서 그 행성을 발견했다. 이것은 명백히 로웰의 예측을 입증했기에 로웰의 생일(3월 13일)에 그것의 발견이 크게 발표되었다. 그리고 명왕성의 첫 번째 두 알파벳은 그의 이름이다.

명왕성은 너무나 흐릿해서 30센티미터(12인치)보다 큰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도 그것의 크기와 질량을 정할 수가 없었다. 초기 추정치는 해왕성과 천왕성의 공전궤도의 편향에만 의지할 수 있었다. 크기는 로웰의 추정치보다 작은 것으로 재빨리 수정되었고, 결국 천문학자들은 지구 질량의 약 3/4로 결정했다.

이 모든 것은 명왕성의 초기 발견 후 거의 50년이 지난 1978년경에 바뀌었다. 주된 증거는 미국 해군관측소의 크리스티(James Christy)가 명왕성에 위성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발견되었다. 그는 1.5미터 망원경의 일부 이미지에서 명왕성은 약간 길어졌으나 같은 사진에서 다른 별들은 그렇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그 이미지들로부터 그는 위성의 공전궤도 직경과 공전주기를 산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의 질량을 훨씬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 이제는 명왕성이 지구 질량의 단지 1/50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계속적인 관측으로 명왕성의 위성이 확인되었고, 국제천문연맹에서는 1985년에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고서 카론(Charon)으로 명명했다.

그렇게 미약한 질량으로는, 명왕성이 거대한 가스형 행성인 천왕성과 해왕성의 공전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1983년에 천문학자들은 적외선천문위성으로 하늘 전체를 수색했으나 숨겨진 행성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제 일반적으로 천왕성과 해왕성의 공전궤도의 섭동은 가상이었고, 로웰의 계산은 틀렸으며 톰보의 발견은 우연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명왕성의 질량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400배만큼이나 틀릴 수 있었을까? 창조론자들이 지구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46억 년 대신에 단지 6,000년밖에 되지 않았음을 말할 때도 비슷한 질문들을 종종 던진다.

지구의 나이처럼 명왕성의 질량은 직접적으로 측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다 *가정*에 근거한 과학 모델로부터 계산되었다. 모든 과학자들은 같은 모델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틀린 답을 얻었다. 하지만, 명왕성의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 이전의 가정을 뒤엎으면서 철저하게 새롭고 확실한 것에 근거한 추정치가 산출되었다.

또 다른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명왕성의 질량은 *경험과학*(operational science)으로 새롭고 더 나은 도구와 기술을 사용해서 현재 계속해서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의 나이는 *역사과학*(historical science)이다. 우리는 과거에만 일어났던 사건을 관찰하기 위해서 시간을 거슬러 여행할 수 없다. 과거에 대한 정보의 경우, 우리는 목격자로부터 신뢰할 만한 보고가 필요하다.

명왕성은 성운설(nebular hypothesis)을 부인한다.

명왕성은 TNO(해왕성너머의 물체)라고 불리는 해왕성 너머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종류에 속한다. 천문학자들은 이것들을 46억 년 전으로 추정하는 때에 태양계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가스와 먼지 성운으로부터 남겨진 물질로 간주한다.

그러나 명왕성은 성운설에 있어 골칫거리이다. 먼저, 다른 행성처럼 같은 궤도면에서 공전하지 않고 약 17° 각도로 공전한다. 왜 그럴까? 두 번째로, 그것의 공전축이 공전면에 수직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어서 현재 태양을 향해 거의 일직선으로 가리킨다. 왜 그런가? 세 번째로, 명왕성의 공전궤도는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다. 사실상, 그것은 해왕성보다 가끔씩 태양에 더 가깝게 접근한다. 왜? 이러한 명왕성의 특성은 성운설의 예상을 부인해서 천문학자들은 그것들을 설명할 임시방편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만들어내야만 했다. 성운설에 대해서는 이쯤 해두자.

명왕성과 그것의 위성은 수십억 년이라는 개념도 또한 뒷받침하지 않는다. 카론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분석한 결과 그것의 표면은 위성의 내부 깊은 곳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물을 가진 활화산으로 덮여있음이 주장되고 있다. 많은 TNO에 경우에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이러한 물체 내부에 내적 열의 근원이 있음에 틀림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그것들이 수십 억 년이 되었다면, 그것들은 수십억 년 전에 차갑게 식어서 활동을 하지 않았어야만 할 것이다.

1. 카론 외에, 두 개의 작은 위성, 닉스(Nix)와 히드라(Hydra)가 2005년에 발견되었다. **참조**



수확한 소나무의 최후

세계에 내 놓아도 자랑할 만하다는 금강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름다운 산세는 그 명성에 걸맞은 것이었다. 기묘한 형상의 빼어난 바위 봉우리들과 구룡폭포 아래로 흘러내리는 골짜기의 수정 같이 맑은 물, 그리고 산봉우리들을 울타리로 삼아 그림처럼 떠 있는 삼일포 호수는 미인의 수줍은 눈망울을 연상하듯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그런데 금강산을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인상 깊었던 것이 쪽쪽 뻗은 소나무 숲이었다. 우리나라의 산을 가보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소나무지만 금강산의 소나무는 굵고도 곧게 솟아 있어 기품이 있어 보였다. 그래서 이 산에 있는 소나무를 금강송이라고도 하고 또한 미인송이라고도 부르는데 반듯하고 훌륭한 재질을 가져 예전에 궁궐을 짓는데 귀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집의 정원이나 야산, 그리고 해변 가에서도 우리는 소나무를 쉽게 볼 수 있어 소나무야 말로 우리나라의 대표 수종이라 할 수 있다. 포항공대 동문 곁의 우람한 소나무도 나무기둥이 묘하게 꼬여 있어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나무 숲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무에 기생하여 자라는 재선충이 발생하여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재선충에 감염이 되면 1년 이내로 90%의 나무가 죽고 나머지 10%도 2년 내로 죽는다. 소나무로서는 치명적인 병이다. 재선충은 길이가 0.6-1.0mm 정도의 작은 실 같은 벌레로서 나무에서 수분과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올라가는 길, 즉 수관부에 기생하면서 물과 영양분을 차단하기 때문에 나무로 하여금 말라 죽게 만든다. 재선충에 감염되면 6일 만에 묵은 잎이 아래로 처지고, 감염 후 20일이 지나면 잎이 시들어지며 새로운 잎도 아래로 처지면서 서서히 고사하고, 30일 후에는 완전히 말라버린 솔잎들이 아래로 떨어진다. 아무리 건강한 나무라도 한번 걸리면 죽게 되는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무서운 병이다. 소나무 껍질에 서식하는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이 매개하여 재선충을 옮기는데 이를 막는 방법은 감염된 나무를 소각하거나 또는 훈증처리하고, 항공방제를 이용해 매개하는 곤충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빠른 속도로 확산돼 지금까지 모두 57만 그루의 나무가 감염돼 고사했다. 경남 지방에서 시작하여 경주, 포항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전역의 소나무가 전멸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수백 년의 세월을 이기고 그 동안의 온갖 풍상을 견뎌내며 곳곳하게 살아 온 소나무지만 실처럼 작은 벌레 앞에 꼼짝없이 당하고 있다. 폭설이 내리거나 강풍이 불어 닥쳐 나무를 때리고 또는 벼락을 맞을 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사시사철 푸른 잎을 자랑하며 살아 온 소나무가 보잘 것 없이 약해 보이는 조그만 곤충에 의해 쓰러지고 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에 의해 지치고 쓰러질 수 있다. 사람마다 완벽하지 않으므로 강점이 있는 가하면 약점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을 자꾸 거론하고 그 약점을 부풀리며 깎아 내리면 받은 상처로 인해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본다.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도 자신을 헐뜯는 말이 들려올 때 의기소침해지고 날개 꺾인 새처럼 두려움에 싸이고 만다. 이렇게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얘기하는 것은 소나무에 재선충이 감염된 것과 같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성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남을 보고 판단하는 눈은 잘 개발되어 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기 보다는 단점을 보는 쪽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남의 흠을 보며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흥미진진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 함께 맞장구를 친다. 그러면 서서히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된다.

성경의 잠언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고 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하고 퍼뜨리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다. 가족의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고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자신의 가족은 각자가 하는 일에서 성공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헐담을 하면 듣기 싫고 화가 난다. 마찬가지로 신앙으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 육신적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간에 약점을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믿음의 큰 가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 믿음의 큰 가족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다. 그렇기에 더 귀한 가족들이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외면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떠들면 곤란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우리도 같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을 우리 자신도 당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 은사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님의 일에 열심히 봉사하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통해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세워줌이 필요하다. 형제의 즐거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함께 축하하며, 형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가 애국가의 2절을 노래하면서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라고 부른다. 오랜 세월 풍상에도 거뜰하게 견디어 온 소나무의 기상처럼 든든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점을 들추기 보다는 각자가 자신이 가진 은사와 강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바람막이 울타리가 되면 좋겠다.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버팀목이 되어 의지하며 이해하는 사회가 된다면 참으로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출처 :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중에서 **창조**

그랜드캐니언 새로 바라보기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 로마서 1:20, 새번역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His invisible attributes,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have been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through what has been made, so that they are without excuse.

- Romans 1:20, NASB

God's eternal power and character cannot be seen. But from the beginning of creation, God has shown what these are like by all he has made. That's why those people don't have any excuse.

- Romans 1:20, CEV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그가 만드신 것들에 나타나 있다고 적혀 있으며, 과학자로서 나의 연구를 통해 그것을 확증합니다. - 앤드류 스넬링



(사진: 그랜드캐니언의 Mather Point에서, 대구지부제공)

어떤 광물의 방사성 붕괴를 통한 암석의 연대측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오랜 지구의 도그마에 대한 주된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늘과 지구 둘 다에 대해 최근 창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들은 종종 방사성연대측정에 의한 오랜 연대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doctrine)을 재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다른 역사적 책들과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문자적 역사로 이해해야만 한다고 믿는 크리스천들의 경우, 오랜 지구에 대한, 소위 말하는, ‘과학적 증명들’의 허구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헨리 모리스

주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놀라운 업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 시편 145:5, 새번역

They will speak of the glorious splendor of your majesty, and I will meditate on your wonderful works.

- Psalms 145:5, NIV

I will keep thinking about your marvelous glory and your mighty miracles.

- Psalms 145:5, CEV **참조**



(사진: 그랜드캐년 Mather Point에서, 대구지부 제공)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ssoya89@hanmail.net)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